

배심원 이어 야권연대 실험?

민주당 “호남 기초단체장 5곳 후보 안 낸다”

나뉘먹기 우려 속 탈당 후폭풍 가능성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논란에 이어 야권 연대의 후폭풍이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 구도를 뒤흔들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위해 민주당이 정치적 뒷받침인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5면)

15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지방선거 연합공천 방식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를 포기하고 타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민주당이 후보를 1명만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 연대 성사를 위해 민주당이 기득권이 있는 호남 지역에서 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타 야권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며 “17일까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연대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수석사무부

총장은 “타 야당이 그러한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양보를 위해 상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단체장 준비를 해온 후보들이 탈당대열에 합류하면서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남이 민주당의 뒷받침이라는 이유로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야권 연대 성사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서 정당 간 나뉘먹기식으로 진행 된다는 비난도 터져나올 수 있다.

한편, 야권은 이날 협의에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전, 울산, 인천은 각 지역 차원에서 의논을 지켜보기로 했으나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경기와 충청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후보가 유력한 광주, 전남, 전북, 충북은 민주당이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협상장에서 이탈한데다 각 당의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에서 야권연대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 신사옥의 조감도. 처음 공개된 한전 신사옥은 지상 41층 규모에 높이가 220m에 이른다.

나주혁신도시에 ‘랜드마크’ 한전 신사옥 광주·전남 최고 220m 41층

저탄소 녹색빌딩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신사옥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41층 규모의 신사옥은 높이가 220m에 이르며, 저탄소 녹색빌딩을 구현하는 최첨단 빌딩으로 세워진다.

15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혁신도시내 신사옥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결과, ㈜창조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에너지폴리스(Enerpolis)’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에너지폴리스는 Energy와 acropolis의 합성어로, 글로벌 종합에너지그룹인 한국전력의 위상과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신사옥은 부지 14만9천372㎡에 높이 220m, 지상 41층, 연면적 11만8천655㎡ 규모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높다.

건물 외관은 세계 초일류 에너지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매력 지수를 높일 랜드마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역동적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특히 국가 중추 전력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건물 전체가 진도 6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물론, 1·2·3차 보안영역을 설정해 대테러 공격 등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에너지센터와 전력통신망 통합관리센터, 종합상황실 등 핵심시설은 진도 8의 강진에도 끄덕없도록 설계해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기능이 유지된다.

태양광·태양열·지열(地熱)·자연환기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돼 현재 한전 본사 사옥 대비 에너지소비량을 50% 감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지열 축냉시스템을 도입, 겨울철 차가운 냉기를 저장했다가 여름철 냉방 기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채택됐다.

에너지파크라는 이름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해 보안성 외에 공공성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한편, 한전은 이달 중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기본 설계를 마친 뒤 12월 터키로 공사를 발주, 오는 2012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사업비 규모는 2천997억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쟁의 조정 실패

노사 조정 거부... 노조 오늘 대의원대회서 파업 돌입 논의

금호타이어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조정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한

층 높아진 것이다. 노조는 16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8면)

15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지

노위는 쟁의행위 조정 시한인 이날 오후 3시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들을 불러 마지막 조정에 나섰다. 양측 주장이 광범히 맞서면서 중재에 실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에서 사측은 “구조조정 은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조가 이를 가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며 “쟁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노사 갈등의 쟁점이 단순히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기본급과 상여금 등 임금 삭감이 핵심이다”며 쟁의행위 조정 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지노위는 저녁식사로 도시락으로 하는 등 5시간여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노사 양측은 “조정안을 원치

않는다. 자율로써 해결하겠다”며 조정을 거부, 이날 오후 8시15분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16일 사흘째 계속되는 노조 대의원대회에 맡겨졌다.

노조는 14~15일 이틀동안 대의원대회를 열어 새 협상안 마련과 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9시30분 대의원대회를 속개할 방침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상당수 대의원은 “파국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워크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발, 이틀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이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업공사를 활용한 투자전략,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가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기업공사를 활용한 투자전략, 이해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강사
기업공사를 이용한 투자전략	김동하 (머니투데이 팀장)
전자공시시스템 활용방법	임홍택 (한국거래소 과장)
성공적인 주식투자 전략	오현석 (삼성증권 파트장)

· 일 시: 2010. 3. 16(화) 오후 4:00~6:30
·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2층)
· 참가비: 무료 · 주 최: 한국거래소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움의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1062-605-1114
대학원 1062-605-1115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01-22-8100